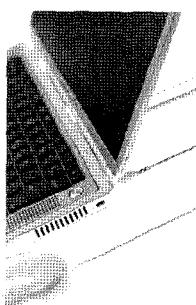




조합·업계소식 www.kcca.or.kr



- 제1회 명문 장수기업대상 한국수출포장(주) 허용삼 대표이사 수상
- 2009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개최
- 국제 곡물가 급등
- 골판지포장 운송효율화관련 수도권지역 물류담당 중역 및 실무자 회의 개최
- 옥수수전분 수입 원활
- 지방 골판지원지업계와 간담회 개최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 성주참외상자 공급량 전년대비 38%가량 증가
- 중견제조업체 대한페이퍼텍 법정관리 신청

제1회 명문 장수기업대상 한국수출포장(주) 허용삼 대표이사 수상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제1회 명문장수기업대상에 한국수출포장공업(주) 허용삼 사장이 지난 5월 20일 수상하였다.

지난 9년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는 허용삼 사장은 “금탑산업훈장 서훈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은데 이어, 이번 수상은 가문과 회사의 명예를 높여준 일이다”고 평가하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건실한 기업경영과 책임있는 기업가 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중압감이 듦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명문 장수기업인상 시상은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존경받는 장수기업을 발굴하여 경제 계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신설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수출포장(주)은 1957년에 고 허성락 회장이 창업하여 1974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50여년간 골판지포장제조업 분야에 집중하여 업계 최초로 KS규격 인증을 획득하는 등 골판지포장산업의 근대화를 선도하였다. 현 허용삼 대표이사는 1968년에 입사이래 1982년부터 26년간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전국 거점별 생산기지를 완성하고, 일괄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골판지포장 기업을 견인하였다는 공로를 평가받아 수상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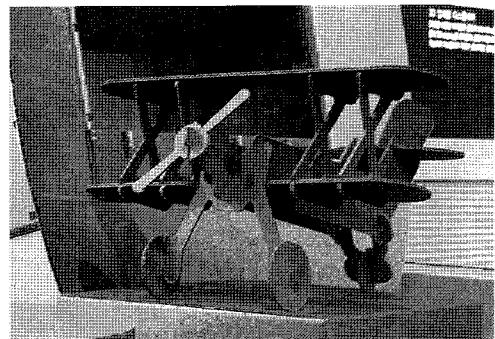


2009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개최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이 일산 KINTEX에서 6월 2일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우리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를 비롯하여 포장관련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컷팅식을 시작으로 6월 5일까지 개최되었다.



1992년부터 「미래, 환경, 그리고 좋은 포장」이라는 주제로 개최해온 국내 최대규모의 포장기자재 전시회인 「코리아 팩 전시회」는 국내포장산업의 성장과 함께 횟수를 거듭하면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포장전시회로서 특히, 올해는 코리아 팩이 지식경제부 선정 '2009년 대한민국 글로벌 텁 브랜드 후보전시회'로 승격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우리 조합은 동전시회에 격년단위로 공동주최기로 하여 지난해에 참여하였으나 금년에는 공식적으로 참여치 않았으며, 우리조합원인 태림포장공업(주)은 개별로 참가하여 8각상자를 중심으로 전시공간을 연출하여 신기술, 신제품을 홍보하였다.



국제 곡물가 급등

지난해 지구촌 전체를 흔들었던 국제 곡물가격 및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다.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CBOT)의 6월 11일 옥수수 거래가격은 부셸당 441센트로 지난 3월 11일 부셸당 356 센트 대비 24% 급등했다.

국제 곡물가 급등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와 중국의 수요 증가, 세계의 곡창지대인 중남미의 가뭄, 고부가가치인 바이오에탄올의 옥수수 투입량의 증대로 원인을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2009 ~ 2010년의 곡물 수확전망에 대하여 국제곡물위원회(IGC)는 세계 곡물생산량이 2008 ~ 2009년 보다 3.4% 줄어들 것으로 내다 봤다.

한편, 국제유가는 7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두바이 원유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배럴당 36.4달러 대비 92% 급등했다.

골판지포장 운송효율화관련 수도권지역 물류담당 중역 및 실무자 회의 개최

2009년 6월 11일 코르피아에서 골판지포장 운송효율화와 관련하여 수도권지역 물류담당 중역 및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회의를 가졌다.

운임체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운송계약 관리에 있어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운송단가와 운송조건으로 인해 운송물류비가 증대되고 있다는 각각에서 물류를 효율화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최적화하는데 있어 골판지업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운송효율화관련 컨설팅이 진행중에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골판지조합 김진무 전무이사, 삼보판지 김천수 전무이사, 신안포장 김연국 이사 등 각사 물류담당 중역, 실무담당자 및 물류 컨설턴트 등 총 16명이 참석하였고, 그간 진행되어온 자료 분석 및 인터뷰를 통한 현황 분석에 대한 보고와 이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표준운송계약서관련 업계공통사항을 중심으로 일



반계약서 표준화 안(초안)을 협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간 진행한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거리별 운임, 각 지종별 적재기준량 분석 및 부대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협의가 이루어 졌는데, 표준운송계약서관련 업계공통사항을 중심으로 일반계약서 표준화 안을 도출하였다.

옥수수전분 수입 원활

국내 옥수수전분업계에서 지난 5월경 공급가격을 인상한 여파로 수입 옥수수전분의 사용량도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지난 2008년 5월 성수기에는 월 3,500톤가량 공급했던 수입옥수수전분이 금년 1월 1,500톤으로 급감한 이후 최근에는 신규 수입업체가 늘면서 2,000톤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수출드라이브 정책 일환으로 증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옥수수전분의 경우 세율 13%를 8%로 인하하여 5%의 증치세를 돌려받게 되어 전분가격이 약 8달러/톤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 골판지원지업계와 간담회 개최

우리조합 오진수 이사장은 지난 5월 2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지방 골판지원지업계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골판지포장조합이 추진하는 현안업무에 대한 설명과 배추포장화시 책에 골판지포장재 활용폭 확대 방안 협의와 시장을 교란하는 비품골판지원지 유통 자체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골판지포장조합 이사장 인사말씀과 골판지포장업계 현안과제 설명과 자유발언과 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오진수 이사장은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골판지원지업계와 골판지포장업계는 동일한 경영환경이 지배하고 있어 상호 협력과 배려 속에서 지속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간담회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석한 제지업체 최고경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내수 및 수출부진 영향으로 재고가 쌓이면 일부 골판지포장업계에서는 무차별적인 가격인하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영업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경영안정과 상생을 위해 상호 양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골판지포장조합에서 오진수이사장과 김진무 전무이사가 참석하였고, 제지업계에서는 대구지역의 아진 정태화 회장, 경산 김명철사장, 진영 황진영사장과 전라지역의 동원 양정훈회장, 대한 조성호 사장(대리참석)등 7명이 참석하였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식품의약안전청에서는 보다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여 2009. 5. 18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과일을 넣지 않은 제품에 과일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바나나우유, 사과쥬스 등의 상표가 향후 바나나맛우유, 사과향쥬스 등으로 바뀌며 5월 18일 부로 시행돼 2010년 4월 30일까지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식품표시기준 개정으로 인해 음식료포장재 상당부문이 디자인 변경될 것으로 보여 5, 6월의 경우 기존 재고물량 소진으로 골판지상자 발주량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 개정내용

1. 앞으로 과일을 넣지 않은 제품에 과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번호 1399를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소비자들이 합성착향료만 사용한 제품을 식품원료가 들어간 제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해당 제품에는 그 향을 뜻하는 원재료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명을 표기하는 경우 “맛”자 사용은 금지하고 “향”자만 사용하되 제품명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3.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다수 제품이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제품 뒤쪽에 표시하였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비자들이 주로 보는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 사과주스(사과 함유량 20%)

4. 또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초콜릿 등 이중포장된 개별제품에 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은 겉포장 안 개별제품에서도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게 된다.

■ 경과조치

고시한 날(2009. 5. 18)부터 시행하되, 경과규정 마련(2010년 4월 30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http://kfda.go.kr>)>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NO. 1798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등 이중포장된 개별제품에도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이 표시된다.」

성주참외상자 공급량 전년대비 38%가량 증가

골판지포장조합은 성주지역 10개 농협과 참외포장용 골판지상자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면서 3~5월에 집중 공급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참외 작황이 좋고 계통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골판지상자 공급량이 전년 대비 38%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지난 5월까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08년의 경우 44억 5백만 원이 2009년에는 60억 93백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그동안 3~4개사가 과점 공급하였으나, 금년에는 9개사가 참여함으로서 과점구도가 완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중견제조업체 대한페이퍼텍 법정관리 신청

대주그룹의 핵심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대한페이퍼텍(주)이 경영난을 겪디다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대한페이퍼텍은 최근 파산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부장판사 이한주)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올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광주·전남 기업체수는 모두 25개사로 늘게 됐으며, 대주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YS중공업(주)과 대한시멘트(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골판지와 종이상자, 종이용기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대한페이퍼텍은 지난 2000년 설립된 이후 연간 20만t의 골판지 원지 양산체제를 갖춰 한해 600억원 규모의 매출(수출 포함)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06년 4월에는 대주그룹 CI 통합작업에 따라 기존 두림제지에서 사명을 변경했으며, 종업원수는 130여명에 이른다. 담양에 관리본부, 영업본부, 생산본부가, 서울에 영업소가 각각 있으며, 동남아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2001년에 1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 골판지 시장의 6.2%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주주택과 대한건설, 대주그룹 하재호 회장 등이 지분의 75% 가량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조만간 채무자인 대한페이퍼텍에 대한 심문과 현장검증을 거친 뒤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통상 1~3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합당성 여부를 심의하며, 기각할 경우 해당 기업은 파산 절차를 밟거나 항고, 재항고할 수 있다.

〈뉴시스, 2009. 6. 22, 송창현 기자〉



승진인사이동

신성CIP(주) 이성용 차장 → (주)한청판지 이성용 부장
(주)삼보판지 서원선 부장 → 신성CIP(주) 서원선 관리이사